

범죄의 제국 허물어뜨린 이성의 천재들

세계 추리소설의 고전

추리소설의 공통재료는 사건과 원인, 범인과 탐정 등이다. 같은 재료로 빚어내는 다양한 작품은 모두 작가의 상상력이 창조한 세계다. 극악하거나 유머감이 툭툭 튀는 범죄로 인간을 관찰하고 표현하는 작가들의 또 다른 세계는 독자들의 관심과 끊임없는 도전, 기발한 독해력으로 생명력을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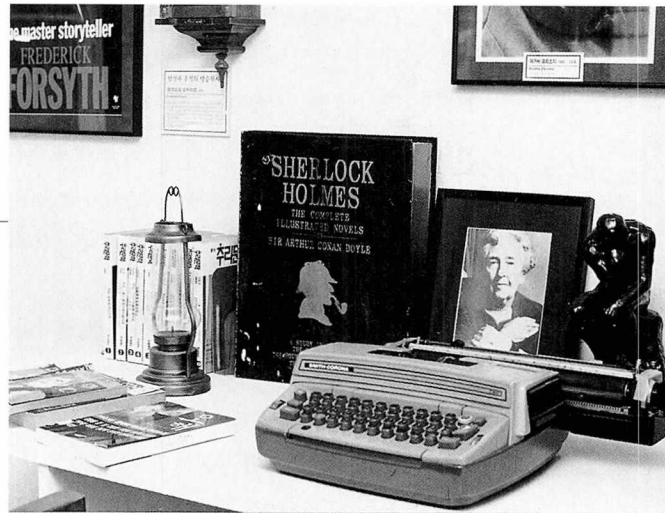
기원과 시조를 밝힐 수 있는 문학장르는 흔치 않은데, 추리소설에서는 예외적으로 '1841년' '〈모르그가의 살인사건〉'이라는 분명한 연대와 작품이 그 기원으로 꼽히고 있다. 그 후 160년이라는 짧은 역사 속에서 작가들은 수많은 작품으로 추리소설을 확립하고 영역을 확장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

추리소설의 비조 에드가 앨런 포

에드가 앨런 포(1809~1849)는 자신의 수준 높은 작품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후대의 쟁쟁한 작가들로 더욱 유명하다. 발레리, 보들레르 등 시인은 물론 스티븐슨, 코넬 도일, 모리스 르블랑, 애거서 크리스티, S.S. 반 다인 등 SF와 추리분야를 망라해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특히 보들레르는 포의 단편에 대해 "여기에는 내가 쓰고 싶었던 작품의 모든 것이 있다"며 포의 작품을 번역하는 데 열정을 쏟았다. 그리고 말라르메는 "검은 재해의 별판에 떨어진 조용한 운석"이라는 소네트로 그를 애도했다.

포의 추리소설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으로 〈모르그가의 살인사건〉(1841)과 〈검은 고양이〉(1845), 〈도둑맞은 편지〉(1845)를 들 수 있다. 〈모르그가의 살인사건〉에는 기이하고 끔찍한 살인사건이 등장한다. 난자당해 머리가 떨어져 나간 잔인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증인은 서로 엇갈려 범인을 찾는 일이 미궁에 빠지지만, "대상을 분석하는 탁월한 정신활동을 하는" 탐정, C. 오귀스트 뒤팽의 노력으로 오랑우탄의 범죄가 백일하에 드러난다는 내용이다. 최초의 추리소설이라는 데 이견이 없는 작품이다.

포의 영향권 안에 든 작가 가운데 한명인 코넬 도일(1859~1930)은 가보리오(1832~1873)와 스티븐슨(1850~1894)의 계보에도 이름을 올린다. 포의 뒤팽, 가보리오의 르코크에 필적할



범인과 두뇌싸움을 벌이는 추리소설 속의 탐정들은 작가의 머리와 손끝에서 창조된다. 사진은 추리문학관의 한 방.

탐정을 소원한 그는 셜록 홈즈와 와트슨이라는 단짝을 창조했다. 도일은 일찍이 문학적 이상을 역사소설로 향했기 때문에 추리소설에 큰 뜻을 품은 것은 아니지만, 혹평을 받은 첫 장편추리소설 《주홍색 연구》(1887)를 딛고 《네 사람의 서명》(1888)으로 성공해 본격 추리소설 작가로 나서게 됐다. 추리소설의 전범으로 인정받는 도일의 작품들은 그에게 '추리소설의 대가'라는 칭호를 선사했다.

육체적·정신적 능력에 큰 가치를 두는 도일의 특성은 주인공을 꾸미는 데서 그대로 드러나는데, '화려한 주인공'과 달리 그의 묘사와 서술은 오히려 건조하다. 즉 뛰어난 사건전개나 얽힘에 비해 심리묘사는 밋밋하다. 홈즈와 와트슨의 활약은 단편집 《셜록 홈즈의 모험》(1892)과 장편 《주홍색 연구》, 《바스커빌가의 개》(1901)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즈와 와트슨의 짝은 서로 깊이 이해하고 돕는다는 점에서 독자들의 놀라움과 부러움을 사기도 한다. 그런 짝은 애거서 크리스티(1890~1976)의 작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에르콜 포와로와 헤이스팅스 대위다. 보조자의 역할에 만족하는 와트슨과 달리 헤이스팅스 대위는 스스로 나서 사건을 해결할 때도 있고, 로맨스의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

인간에 대한 관찰 뛰어난 크리스티의 작품들

크리스티가 낳은 매력적인 인물은 포와로와 헤이스팅스를 비롯해 제인 마플, 파커 과인, 배틀 총경, 토미와 터펜스 등이 있다. 크리스티의 탁월한 상상력과 재능으로 빛은 이들은 각기 개성이 뚜렷하고, 뛰어난 능력은 물론 약점과 단점도 도드라져 인간적인 매력을 더욱 뽐낸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너무 뛰어나 부담스러운 탐정'은 찾아볼 수 없다.

크리스티의 천부적 재능이라 할 심리묘사와 인간본성에 대한 고

찰은 특히 《목사관 살인사건》(1930)에 처음 등장해 《화요일 클럽의 살인》(1932) 등의 주인공으로 활약한 마플을 통해 구현된다. 마플은 마을사람들과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관찰하며 '외모는 물론 심성까지 구획할 수 있다'는 통찰을 얻는다. 물론 그 통찰은 복잡하게 얽힌 살인사건을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 적절히 쓰인다.

크리스티는 《스타일즈저택의 죽음》(1920)을 시작으로 마지막 작품인 《운명의 문》(1973)까지 추리소설만 보면, 단편 19편과 장편 64편을 썼다. 이는 실제 출간한 추리소설 수와 차이가 있는데, 제목을 달리해 재출간한 것과 재편집한 책이 있기 때문이다. 1974년부터 1976년까지 해마다 한 권씩 새로 출간됐지만, 이들은 재편집됐거나 1940년대에 써둔 것을 뒤늦게 출간한 것이다. 특히 1975년에 펴낸 《커튼》은 포와로의 죽음을 다룬 것으로, 이 글이 탈고됐을 때 신문에 포와로의 부고가 날 정도로 사회적인 관심이 대단했다.

그는 자신의 작품 가운데 걸작 10편을 특별히 언급한 적이 있는데, 포와로가 나오는 《애크로이드 살인사건》(1926), 《오리엔트 특급살인》(1934), 마플의 추리가 돋보이는 《예고살인》(1950), 《움직이는 손가락》(1942), 특별한 탐정이 등장하지 않는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1939), 《비뚤어진 집》(1949) 등이다. 크리스티의 자전은 평론가들의 견해와 비슷하며, 《애크로이드 살인사건》《움직이는 손가락》《끝없는 밤》(1967)은 빠지지 않고 순위에 드는 작품이다.

탐정을 창조한 여타 작가들과 달리 도둑을 만들어낸 모리스 르블랑(1864~1941)은 모파상의 영향을 받아 심리소설을 쓰는 등 순수소설 창작에 매진하다, 포의 영향으로 1905년 아르센 뤼팽을 출산하며 추리소설에 뛰어 들었다. 단편집 《괴도 신사 아르센 뤼팽》(1906), 장편 《뤼팽과 기암성》(1909), 《뤼팽과 813의 비밀》(1910) 등이 있다. 1908년 《아르센 뤼팽 대 설록 홈즈》를 펴내 아르센 뤼팽을 프랑스의 국민적 영웅으로 만들었다.

독특한 작품세계로 한 시대 흥미한 작가들

도일, 르블랑 등과 달리 특별히 누구를 사사했다고 할 수 없는 작가는 체스터튼(1874~1936)과 엘러리 퀸이다. 체스터튼은 시, 평론, 수필, 소설 등 다방면의 빼어난 저작으로 유명하다. 추리소설은 《브라운 신부의 천진함》(1911)을 시작으로 《브라운 신부》 시리즈만 1백여 편에 이른다. 브라운 신부는 "범인의 심리를 추구하"는 관찰력과 심적 깊이로 지적활동에만 의존하는 뤼팽과 조사하고 파헤치는 홈즈를 섞어 놓은 모습이다.

엘러리 퀸은 사촌간인 멘 프레드 배닝턴 리(1905~1971)와 프레데릭 더네이(1905~1982)의 공동필명이고, 한동안 '버나비 로스'라는 또 다른 필명으로 작품을 발표해 많은 독자들을 놀라게 했

다. 같은 시기에 활동한 S.S. 반 다인(1888~1939)과 라이벌 관계였다. 엘러리 퀸과 달리 포의 세례를 받은 반 다인은 《미스터리한 벤슨 사건》(1926), 《녹색 살인 사건》(1927) 등 추리소설뿐만 아니라, 《범죄 작품 구성을 위한 20가지 규칙들》(1928)까지 펴낸 걸출한 작가다.

엘러리 퀸의 작품은 《로마 모자의 비밀》(1929)을 필두로 〈국명〉 시리즈 〈XYZ〉 시리즈를 쓴 1기, 《스페인 꽃의 비밀》(1935) 등을 쓴 2기, 《악의 기원》(1953) 등을 펴낸 3기로 나뉜다. 그의 작품들은 "지적인 면과 극적인 면의 조화로 현대 추리소설 사상 최고의 기교"라는 찬사에 합당한 트릭과 구성을 보여준다. 엘러리 퀸의 주인공인 '엘러리 퀸'은 뉴욕의 퀸 형사와 추리소설 작가인 그의 아들 엘러리가 한 쌍이다.

소설 속의 퀸 형사가 현실 속으로 나온 이는 바로 '현장파' 작가의 시조격인 더셀 해미트(1894~1961)다. '앉아서 하는 수수께끼 풀이식의 추리소설'에 반기를 들고 작가 자신의 탐정 생활을 바탕으로 생생한 서술, 건조한 문체와 거침없는 표현, 행동에 중심을 둔 비정한 묘사를 선보여 하드보일드 작품의 대표로 늘 거론된다. 《붉은 수확》(1929), 《말타의 매》(1930) 등이 대표작이다.

어릴 적부터 더셀 해미트, 레이몬드 채들러(1888~1959) 등의 작품을 탐독한 윌리엄 아이리시(1903~1968)는 출생연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정도로 사생활이 알려지지 않은 작가다. 본명은 코넬 조지 해프레이 율리치로 '코넬 율리치'라는 필명을 사용하기도 했다. 《검은 옷의 신부》(1940)가 코넬 율리치의 대표작이고, 《환상의 여인》(1942)은 아이리시의 으뜸작이다. 공포와 서스펜스에 남다른 기교가 있고, 탭댄서를 꿈꾸기도 했던 재기발랄함으로 독자를 번번이 속이는 놀라운 작품들을 써냈다. 특히 《환상의 여인》은 빈틈없는 구성과 신선한 문체로 꾸준히 읽히며, 엘러리 퀸의 《Y의 비극》(1932), 애거서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와 더불어 세계3대 추리소설로 꼽힌다.

도일과 체스터튼을 흠모해 영국여성과 결혼하고 한동안 영국에서 살았던 존 디슨 카(1906-1977)는 탐정 지던 펠을 창조했고, 《세계의 관이 다시 닫히리라》(1935), 《중얼거리는 자》(1946) 등을 펴냈다. '카 디슨' '카터 디슨'이라는 필명을 쓴 적도 있는데, 그 당시의 작품에는 '탐정 HM'이 등장한다. 미스터리와 신비성, 괴기성 등이 혼재하는 그의 작품은 평도 극적으로 갈린다.

포나 도일처럼 주로 19세기에 활동한 작가들이 추리소설의 방법론을 시험하고 창안했다면, 크리스티, 퀸, 아이리시 등을 위시한 20세기의 작가들은 선배들의 다양한 실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독특한 문체와 이야기를 맘껏 풀어놓는다. 이들은 문체, 구성, 인물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 작가의 특성과 개성에 따라 추종자를 거느릴 정도다. 이런 현상은 추리소설의 본고장이라 자처하는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 고르게 일어났다. — 차정신 기자